



Hana Market Weekly

달러/원·엔·유로환율·금리·주식

자금시장영업부

2024. 1. 8

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, 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.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,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.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.



주간 달러/원 동향(1/2~1/5) 및 전망



주간 달러/원 동향

- 주초,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 조정에 의한 달러인덱스 반등과 중국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위안화 약세 영향 반영하며 환율은 1300원대로 상승
- 중반, 최근 미 국채수익률 급락과 달러 약세에 대한 되돌림 압력 속 FOMC 의사록 발표 앞둔 경계감 등에 상승 흐름 지속
- 후반, FOMC 의사록 내 금리인하 시기 등 구체적 내용 부재에 조기 금리인하 전망 약화되며 상승 압력 받았으나 수급상 수출업체 매도 물량 등에 상단 제한. 주 후반, 미국 12월 고용보고서 발표 앞두고 민간고용 호조에 경계감 높아진 가운데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영향 더해지며 1.310원대 중반 마감

달러/원 전망

- 미국 12월 비농업고용지표가 예상보다 견고한 모습을 나타냈지만,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를 추가로 되돌리기에는 쉽지않을 전망 속에 환율의 상승 탄력도 제한 될 것으로 예상
- 여기에 미 비제조업 PMI 및 고용지수 부진 등도 달러 약세를 지지하는 가운데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
- 다만, 부동산 PF 부실화에 따른 구조조정 우려 등이 불확실성을 높이는 상황 속에 환율 상방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요인으로 판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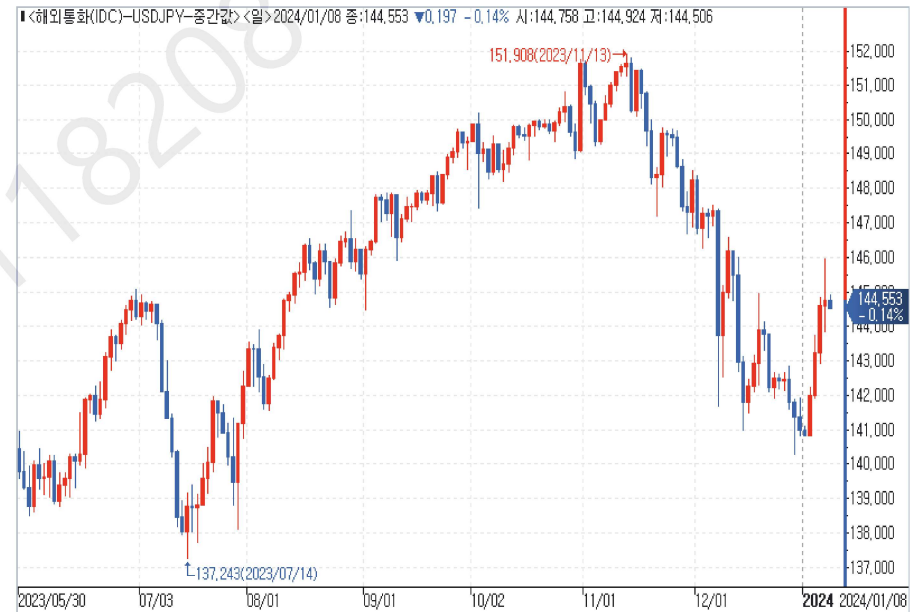
주간시가	주간고가	주간저가	주간종가	주간등락
1,293.0	1,317.2	1,290.2	1,315.4	+22.4

예상거래범위

1,305원 ~ 1,315원



엔·유로화 동향 (1/2~1/5)



유로화 동향

- 주초, 유로존 12월 제조업 PMI 부진 등 위축세 지속되는 측면이 유로존 경기침체 우려 자극하며 유로화 약세로 출발
- 중반, FOMC 의사록 내 금리인하 시기 관련 언급 부재에 따른 연준의 정책 전환 기대감 조정과 달러 강세 영향으로 약세 지속
- 후반, 독일 12월 CPI 반등 확인 후 ECB의 선제적 금리인하 전망에 대한 일부 되돌림 압력 속 유로화 강세 전환. 이어 주 후반, 유로존 인플레이션 불확실성 반영한 ECB의 통화정책 피벗 지연 가능성과 경기침체 우려 등이 상충하는 가운데 약세 전환 후 마감

주간시가	주간고가	주간저가	주간종가	주간등락
1.1046	1.1047	1.1088	1.0939	-0.010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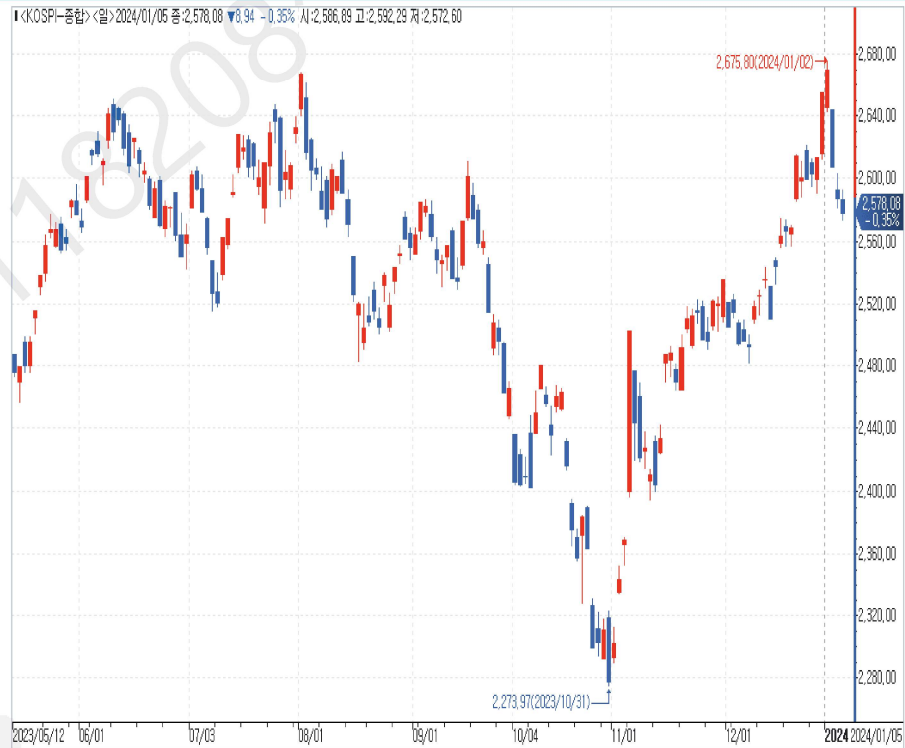
엔화 동향

- 주초, 일본 이시카와현 지진 소식에 BOJ의 마이너스 금리 해제 시점이 예상보다 늦춰질 것인 전망 제기되면서 엔화 약세로 출발
- 중반, 시장 예상보다 덜 도비시한 FOMC 의사록에 달러 강세 지지되는 가운데 일본 노토반도 지진의 경제적 피해에 대한 우려 확대되면서 약세 심화
- 후반, 미국 민간고용 호조에 따른 Fed 금리인하 기대 조정과 강달러 영향 속 144엔대 재진입하며 약세 지속. 이어 주 후반, 예상치 상회한 미국 비농업 고용지표에 의해 달러 지지력 유지되면서 엔화는 약세 흐름 속 마감

주간시가	주간고가	주간저가	주간종가	주간등락
140.8	145.9	140.8	144.7	+3.9



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[1/2~1/5]



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

- 주초, 전년 후반 강세가 강했던 국고채 시장의 장기물 입찰 소화 등에 따른 수급 부담 등을 반영하며 국고채 금리의 하락 되돌림 속 출발
- 중반 들어, 미 국채 금리 또한 지난해 말 강세 흐름이 되돌림 된 가운데 국고채 금리의 연동 흐름 강화 속 외국인의 국채선물 대규모 매도 영향 등으로 상승 흐름 지속
- 후반 들어, 미 연준의 12월 의사록에서 Fed위원들은 현 금리 수준이 고점부근이라는 인식에 수렴하고 있다는 분석 등으로 미국채 금리가 하락 전환한 가운데 국고채 금리도 이에 영향 받는 가운데 초장기 구간에서의 기관 수요 유입 등으로 하락 전환. 이어 주 후반, 미 민간 고용 호조 영향 등으로 국내외 금리는 대체적으로 상승 전환 흐름 보이며 마감

주간 증시 동향

- 주초, 새해 첫 거래일을 맞아 코스피는 외국인, 기관의 매수세 등으로 4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출발
- 중반 들어, 연속 상승 흐름에 대한 과열 부담 속에 국내 기술주 중심 차익 실현 심리 강화 등으로 하락 전환
- 후반 들어, 12월 FOMC 의사록이 전반적으로 도비시했음에도 참석 연준 위원들의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소식 속에 뉴욕 증시 하락을 반영하며 낙폭을 늘린 양상. 이어 주 후반, 북한 포격 도발 소식에 변동성 확대 양상 나타났으나 그 영향 지속 정도는 다소 제한적이었던 가운데 미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 짙어지는 가운데 기관 매도 강화 등으로 하방 압력 강화되며 마감